‘주남마을 학살’ 진압봉·탄약통 전시한다

내일 ‘기역이 니은이 축제’서 희생자 유가족이 기증 마을회관 2층에 공간 마련

5·18 민주화운동 엿새째 벌어진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당시 계엄군이 사용했던 진압봉과 탄약통이 광주시 동구 지원2동 주남마을에 보관·전시된다.

11일 주남마을 주민들과 광주YMCA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부터 주남마을 버스 총격사건 희생자 위령비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에서 진압봉 1점과 탄약통 2점을 돌려받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축제에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유가족인 고(故) 최수길(당시 22세)씨의 동생이 함께 한다.

진압봉과 탄약통은 1980년 5월21일부터 5일간 주남마을에 주둔했던 제7공수부대와 제11공수부대 소속 부대원들이 흘리고 간 것이다.

공수부대 부대원들은 21일 오후 전남도청 집단 발포 이후 외곽으로 철수한 뒤 화순으로 가는 길목인 주남마을과 녹동마을에 주둔하며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 차량 통행을 봉쇄했다. 11공수부대 부대원들은 주둔 사흘째인 23일 오전 승객 18명을 태운 25인승 미니버스를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민간인 1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부상을 당했다. 계엄군은 또 다시 부상자 3명 중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주남마을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사적 14호로 지정돼 있다.

13일 주남마을로 돌아가는 계엄군의 진압봉과 탄약통.

주남마을로 돌아가는 진압봉 등은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난 마을 주민 고 신길순씨가 33년간 보관해오던 것이다. 신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진압봉 2점과 탄약통을 주남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함께 해온 문병교 광주YMCA 두암동커뮤니티센터장에게 기증했다. 문 센터장은 이 진압봉 2점을 다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당시 주남마을 뒷산에서 희생된 최수길씨 동생에게 지난해 7월 부탁했다.

문 센터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진압봉을 콩타작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5·18 기념사업에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받은 것”이라며 “고인이 된 최수길씨 동생에게 ‘다시 마을에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요청하자 진압봉 2점 중 1점을 다시 기증해줬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진압봉 등을 주남마을 마을회관 2층에 공간을 만들어 보관할 계획이다.

최수길씨의 동생은 다른 1점의 진압봉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주남마을 주민, 유족회, 5·18기념재단, 광주시 등과 논의해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올해 3회째인 ‘기역이 니은이 축제’는 마을 주민 공동체가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80년 5월의 아픔이 있는 마을을 치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축제다. 주남마을은 과거 ‘녹두밭 윗(웃)머리’라고 불리던 척박한 땅으로, 주민들은 ‘기억하라 녹두밭 윗(웃)머리’의 초성을 따 ‘기역이 니은이’라는 인권문화제를 만들었다. 또 지난해부터 축제 개최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180원에서부터 5만1800원, 51만8000원까지를 모금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에는 주남마을 주민들과 광주YMCA가 협력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희생자 암매장지에 작은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 민주·인권·평화의 시 낭송, 노란 풍선 날리기, 참가자 붓글씨, 녹두 주먹밥 나누기 등으로 꾸며진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남도 발간 ‘전남이야기’ 5·18 왜곡 논란

부정적 시각 상당수 포함 “오류 많고 교육용 부적합”

전남도가 지난해 발간한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 책자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과서에 단순 오류가 아닌 5·18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9일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정수만 전 (사)5·18 유족회장, 박상철 초등학교 교사(5·18 계기교사) 등에게 이 책자의 ‘5·18 민주화운동’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내용 면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김대중씨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p88)고 하는 내용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국가단체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는데, 시위대가 김대중씨 석방 구호를 외쳤다고 한 것은 ‘김대중=빨갱이=시위대=5·18 폭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언론 왜곡이었는데도 아무런 설명없이 그대로 서술했다는 점이다.

당시 국내언론은 보도제한지침에 따라 5·18에 대한 보도를 자제했고 외신이 5·18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내외에 알려지자 신군부가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MBC와 KBS 방송국에 화염이 치솟았다.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타 지역 불순분자들과 고정간첩이 선동한다는 내용의 방송에 시민들이 격분해 방화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p89)고 기술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방화사건은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군인이 오히려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살육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서술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5·18 왜곡세력이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방송국·세무소 방화와 총기를 들었다는 점을 드는데, 이 같은 취지의 서술은 5·18 왜곡세력이 ‘폭도들이 방화를 내는 등 당시 광주는 무법천지였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5·18을 왜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쌍방의 감정이 악화돼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p89)는 내용에 대해선 객관성을 빙자해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군이나 시민군 모두 잘못했지만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좀 더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작전명 ‘화려한 휴가’(→육군 작전명령), ‘계엄사령관 이희성 21일 오전 10시 담화문 발표’ 등은 명백한 오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교사는 “전남도에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했다는 데 상당히 놀랐다”며 “내용면에서 오류가 많은데,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예산 4000만 원을 들여 364쪽자리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를 발간(250부)했다. 이 책자는 신규공무원·수석사무관·문화관광해설사 등 교육용과 전남을 알리는 홍보용으로 사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유공자 등 인천공항 전용통로 출국

국토부, 7월부터 시행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도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용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과 함께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동반여객을 3명까지 허용하도록 1명 늘린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새롭게 전용출국통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사람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상이등급이 명시된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와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이다.

또 70~79세 고령자도 7월부터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용출국통로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이나 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해 이용대상임을 확인받고 출입증(패스트트랙 패스)을 받거나 전용출국통로 입구에서 출입국우대카드를 보여주면 이용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C방 업주 살인’ 케냐인 무기징역 구형

광주지법, 20일 선고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케냐인 M(28)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살해 수법 또한 잔혹했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M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만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M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광주 모 PC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돈을 훔치는가 하면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이뤄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사비리 의혹’ 박철환 해남군수 사전 영장

“근무성적 평정 순위 조작”

해남군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박 군수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박 군수의 비서실장은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군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인사비리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남군 인사비리 의혹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자 등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대장, 5월단체 대표 만나

전두환 유감 표명· 5·18묘지 참배 뜻 전달

5·18재단 “진정 어린 사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한 인사가 11일 광주에서 5·18단체 대표들을 만나 전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의사를 전달했다.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대장은 이날 광주의 한 식당에서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등 5월 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김 전 보안대장은 이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이후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총체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5·18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의 전제로 “전 전 대통령은 현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돼 신변안전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고,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은 “5·18은 광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의 아픔과 상처”라며 “전씨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그것이 진정 어린 사과로 여겨질 때 광주 공동체가 사과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김 전 보안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연희동에서 전 전 대통령 내외와 5공 측근들이 참석한 회동에서 전 전 대통령이 밝힌 5·18 관련 입장을 전하려고 이날 광주를 찾았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고 광주로 내려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을 지낸 5공 출신으로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 사과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생각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입장을 전달하려고 광주를 찾은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대장과 악수하고 있다. 차 이사장은 “전두환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하려거든 직접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테이저건으로 의경 겨냥한 현직 경찰 경징계 논란

쌍나팔

○…현직 경관이 총기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의경 앞에서 다른 의경을 향해 테이저건을 겨냥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도 감봉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아 논란.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마포검문소에서 테이저건으로 A일경을 겨냥했다는 것.

○…김 경사의 행동은 지난해 8월25일 벌어진 ‘구파발 총기사고’로 숨진 박모 수경과 함께 있던 B수경 앞에서 이뤄졌는데,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사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지만 김 경사의 불복으로 지난 4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19986	1	서구 풍암동 1102 대주파크빌 201동 11층 1103호 127.20㎡	아파트	281,000,000 281,000,000	
2015타경 20467	1	서구 화개1로59-2, 102동 2층 203호 [금호동,충원팰리스빌아파트] 84.9831㎡	아파트	230,000,000 230,000,000	2015타경63983[중복]
2015타경 22692	1	나주시 용산동 344 용산2단지주공아파트 205동 2층 204호 49.62㎡	아파트	55,000,000 55,000,000	2015.10월말현재 관리비약681,960원이미납상태임
2015타경 22845	1	서구 상일로53, 304동 7층 703호 [쌍촌동,쌍촌동호반리젠시빌] 84.7555㎡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2015타경 22876	1	광산구 장덕로6번길35, 103동 17층 1703호 [장덕동,진흥수완더루벤스] 84.967㎡	아파트	279,000,000 279,000,000	
2015타경 23596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8동 4층 404호 49.96㎡	아파트	65,000,000 65,000,000	
2015타경 63860	1	서구 화운로193번길25, 106동 19층 1903호 [내방동,내방마을주공아파트] 84.11㎡	아파트	215,000,000 21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17522	1	서구 농성동 401-16 116㎡	대	90,338,380 90,338,3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서구 월산로245번길 20-4 1층61.425㎡ 2층 39.18㎡ 지하실11.7㎡ 부속건물 변소 1.62㎡ 제시외 창고 등 26㎡	단독주택		
2015타경 22937	1	서구 세하동 562-6 1호 97.6㎡ 제시외 창고 등 55.2㎡	단독주택	130,356,870 130,356,87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3부속건물변소및창고24.68㎡는멸실로매각제외
		동소 562-6 201㎡	대		
		동소 562-7 11.57㎡ 부속변소,창고24.68㎡	축사		
		동소 562-7 51㎡	대		
2015타경 60939	1	남구 구성로76번길 7 2호 109.49㎡	단독주택	73,547,920 73,547,92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송금자지분9/31전부
		동소 7 1호 63.03㎡ 부속건물 창고,변소 [현황멸실]8.55㎡	단독주택		
		남구 월산동 32-1 306㎡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5타경 23060	1	남구 금화로448, 4층 402호 [월산동,정원스위트빌] 25.576㎡	다세대	38,000,000 38,000,000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4639	1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341 621㎡[일부농로]	대	31,050,000 31,050,000	비닐하우스는매각제외
2015타경 14998	1	북구 태령동 135 1934㎡	전	228,764,000 228,764,000	일괄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동소 148-3 284㎡	대		
2015타경 20351	1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52-2 2301.8㎡	대	674,427,400 674,427,400	
2015타경 22074	1	서구 농성동 412-2 197㎡	전	98,894,000 98,894,000	
2015타경 22272	1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343-1 516㎡	전	19,172,000 19,172,000	일괄매각.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강남준의지분1/3전부
		동소 346 559㎡	전		
		동소 347 1775㎡[물건번호1: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목록1,3분묘수기소재,현황묵전및일부묘지]	전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 22302	1	서구 금호동 767 금호2지구도시공사2단지아파트 상가동 2층 201호 54.945㎡	근린시설	112,000,000 112,000,000	
2015타경 22364	1	광산구 쌍암동 689-5 2층 201호 148.8㎡	근린시설	327,000,000 327,000,000	
	2	동소 689-5 202호 136.78㎡	근린시설	301,000,000 301,000,000	
2015타경 23350	1	서구 군분2로54, 2층 65호 [화정동,금호월드] 32.28㎡	근린시설	78,000,000 78,000,000	
[자동차,중기]					
2016타경 828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무등로 195 [신안동] 등록번호:광주86바9571 차명:한국상용19톤윙바디트럭 연식:2015	자동차	145,000,000 14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6타경 2084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 59-17, 203호[신용동] 등록번호:60루3934 차명:토스카2.0디젤 연식:2007	자동차	2,500,000 2,500,000	보관장소:광주동구서석동125-1황금알주차장
2016타경 2626	1	사용본거지: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01동 902호[181-20화순2차서라아파트] 등록번호:64루5564 차명:쏘나타[SONATA] 연식:2012	자동차	8,500,000 8,5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번길3송원주차장
[기타]					
2015타경 19689	1	북구 월출동 971-9 1층936.50㎡ 2층433.20㎡ 제시외 가추 등 211.5㎡,기계기구 수전설비 등 2식	공장	1,394,721,100 1,394,721,1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장저당법제7조목록참조
		동소 971-9 3321.5㎡	공장용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5. 27.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6. 3.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윤영수